

“노동자 투쟁으로 윤석열 시대를 노동의 시대로”

132주년 세계노동절 대회 ... 전국 7만 5천 노동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 결의

금속노조가 민주노총과 함께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2022년 세계노동절 132주년 대회를 벌이고, ‘차별 없는 노동권’과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불평등 체제교체’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 7만 5천여 명이 4월 30일, 5월 1일 양일간 전국 16개 지역에서 2022년 세계노동절 대회에 참가했다. 서울 노동절대회에 금속노조 조합원 350여 명을 포함해,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 명이 함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경찰은 40여 명의 간부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총연맹 임원과 간부 두 명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위원장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를 들고 힘차게 투쟁하자”라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삼권 보장 ▲안전한 일터 확립 ▲모범사용자로서 정부 역할 촉구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시기 양질 일자리 쟁취 등 2022년 민주노총의 요구와 목표를



제시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남성이면 여성을 위해 싸우자, 정규직이면 비정규직을 위해 노력하자. 큰 회사에 다니면 작은 사업장을 위해 외치자. 비장애인이면 장애인을 위해 나서자”라며 “우리가 가진 노동조합의 힘으로 모든 노동자를 위해 투쟁하자”라고 호소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끝으로 “불평등 체제 교체는 전쟁을 막고, 사회를 노동 중심의 세상으로 바꾸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진보 정치를 강화하는 투쟁이다”라면서 “노동자가 투쟁으로 다가오는 5년을 윤석열 시대가 아니라 노동의 시대로 만들자”라고 천명했다.

이날 서울 노동절대회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참석해 연대사를 건넸다. 박경석 대표는 “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 죽었다. 21년이 지난 지금도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이동권을 외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다. 교육받고 싶다. 노동할 기회를 보장받고 싶다. 탈시설 권

리를 보장받고 싶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지속 가능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외쳤다.

박경석 대표는 “대한민국은 차별 공화국이다.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쓰여 있다. 지금까지 모든 권력은 헌법 11조를 위반했다”라고 꼬집었다.

박경석 대표는 “연대는 혐오보다 강하다는 진리를 132주년 노동절에서 함께 확인하고 함께 싸워줄 것을 호소한다”라며 노동자, 시민을 향해 전장연 투쟁에 함께해달라는 말을 전했다.

이날 서울 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노동자, 시민들은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출발해 을지로 입구, 종각, 광화문 네거리를 거쳐 윤석열 인수 위 앞까지 행진한 후, 마무리 집회로 노동절 행사를 마쳤다.

“산재 죽음 은폐·자본 옹호 노동부 자폭하라”

중대재해 방관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 열어 ... 1천 금속노동자, 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강력 규탄

“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는 자폭하라, 자폭하라, 자폭하라.” 금속노동자들이 중대재해를 막기위한 방치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4월 28일 14시 세종시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중대재해 방관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동시에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대회를 열었다. 이날 금속노조 주최 대회에 참가 예정 조합원보다 많은 1천여 명이 전국에서 모였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라며 “노동부는 탁상 위에서 산재사망 줄었다고 자랑하고, 뒤늦게 압수 수색하는 사후 대책 때려치우라”라고 성토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노동부는 오늘을 기점으로 중대재해 노동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현장 전체 점검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OECD 1위 산재공화국의 중대재해 근본 원인은 자본의 끝없는 이윤추구와 탐관오리들의 끝없는 은폐와 방관이다”라면서 “금속노조가 사건을 은폐하고 자본을 옹호하는 노동부를 향해 끝없는 투쟁을 전개하자”라고 호소했다.



손덕현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산업안전본부 앞 마무리 집회에서 “금속노조는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서 산재 업무를 책임지는 노동부를 타격하기 위해 세종시에 왔다”라며 “노동자 죽음을 방지하는 정부와 자본을 더는 참지 못하겠다. 가슴에 치미는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라고 분개했다.

손덕현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간부·조합원 동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2022년

20만이 단결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총파업 조직을 독려했다.

이찬우 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손덕현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윤덕기 노동안전보건실장 등은 대회를 마치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방문해 노동부의 직무유기와 중대재해 대응 체계 개악 등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개선 조치하지 않으면 위력적인 투쟁으로 대응한다고 경고했다.